

'24시간 악취 민원 대응'...나주시, 악취전담팀 신설·운영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 통해 나주형 악취관리 플랫폼 완성 민원 창구 단일화...혁신도시 정주여건 최대 현안해결 총력

나주시가 혁신도시를 비롯한 집단주거지 인근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운영한다.

나주시는 민선8기 시민과의 약속인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첫 단추로 '악취전담팀'을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팀은 조직개편을 통해 광주·전남 지자체 중 최초로 고질적 악취 민원 해소를 목표로 환경관리과 산하에 새롭게 꾸렸다.

나주시는 악취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반 한 24시간 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축산악취 해소에 적극 나

설 방침이다.

나주지역 축산악취 민원은 도내 1위, 전국 4위 규모의 축산업에서 비롯되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이후 수 년 간 도심과 지척에 위치한 양돈장과 퇴비업체 등에서 내뿜는 악취는 민원 폭증으로 이어질 만큼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으로 꼽혀왔다.

신설된 악취전담팀은 '악취관리종합대책 수립', '악취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악취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악취해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혁신기술을 도입한 '24시간 악취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실시간 악취발생 동향, 악취모델링에 따른 사전 예측 등 선제적 조치로 악취로 인한 시민 생활 불편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위주의 일방향적 악취관리 체계 극복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나주형 악취관리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는 주민들이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실시간 악취상황을 수치상으로 확인·신고하면 현장에 출동한 담당자가 원인을 파악한 후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하는 시스템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악취전담팀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환경권을 개선하고,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나주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기자

화순군, 산림소득 확대 위한 시범사업 추진

청정 화순 숲속에서 건강한 임산물 생산기반 마련

화순군이 민선 8기를 맞아 군 전체면적의 73%인 산림을 활용한 소득 확대와 임업 경쟁력 향상하고자 군비 8억 원을 투입하는 '2022년 산림소득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산림소득 지원사업은 지역특화 작목 선정 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지원 품목은 더덕, 도라지, 취나물, 두릅, 산마늘, 고려엉겅퀴, 곤달비, 눈개승마, 구절초, 삼주, 잔대 등 11종이다.

임산물 종자, 종묘 구입비, 식재 인건비, 정리 작업비, 작업로 등에 대해 군비 60%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40%이다.

산림소득지원 사업 대상자는 지역에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임업인, 임업 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생산자단체다.

특히, 이번 산림소득 지원사업은 산림 소득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지적공부상 임야와 산림과 연결한 한계농지 등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며, 집단화된 농지는 지원이 불가하다.

군은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수립한 사업지침에 따라 현지 확인, 심의회 등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를 강화해 무자격자, 중복지원 신청자, 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은 제외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 시 지침에 명시된 사업내용, 사업비율, 자격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16일까지 사업대상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군, 인문학교육·전통정원특구 활성화 위한 '저자초청 독서특강' 개최

'렌션 인문학 여행' 주제로 예술가와 명소 이야기 나눴



담양군은 지난 25일 인문학교육·전통정원특구로서 군민의 다양한 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해 책 읽는 인문도시 정착과 인문학 저변확

대를 위해 '저자초청 독서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은 리얼인문학 박소영 대표를 초청해 저서인 '렌션 인문학 여행'을 주제로 빈센트

반 고흐 등 예술가와 장작의 영감을 주었던 명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참가자와 소통하는 양방향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교육 참여자는 "코로나19로 자유롭게 여행을 가지 못하는 때에 세계적 거장들의 안내를 받으며 인문학 여행을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도 9월 22일 어니스트헤밍웨이, 10월 13일 요한 볼프강 폰 괴테, 10월 27일 찰스 디킨스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되며, 에듀센터 다목적실(담빛청소년문화의집 3층)에서 각각 오후 7시에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인문학교육 콘텐츠 개발과 다양성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인본중심의 인문학 계승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군,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추진

곡성군은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에 따라 곡성군 직원들은 심청상품권을 사용해 명절 제수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매할 계획이다.

위축된 소비 심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역 내 유관 기관과 관련 단체들에게도 전통시장 장보기에 참여해 명절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

을 요청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 물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물가 안정 캠페인도 병행한다. 전통시장 방문객들과 상인들에게 건전한 소비 문화 확립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도록 소방 시설, 전기, 가스, 건물 분야 전문가들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지난 24일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곡성=양해영기자

구례군 "겨울철 연료 걱정없다"

도시가스 없는 독자·가랑 마을 LPG 배관망 공급

구례군은 지난 26일 구례읍 독자마을, 마산면 가랑마을에 마을 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구례군이 지난해 전라남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억 7000만 원과 군비 5억 4000만 원, 자부담 9000만 원 등 총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되었다.

구례읍 독자마을 60세대, 마산면 가랑마을

30세대 총 90여 세대가 에너지 복지 실현으로 안정적인 LPG를 공급받는다.

농어촌 마을단위 LPG보급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등 시설 설치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노후배관 철거 및 급속배관 교체, 가스경보기 및 CO감지기 설치 등 가스시설 현대화로 농촌지역 가스시설 안전에 기여하고, 특히 기존 용기 LPG, 등유 보다 약 20~40% 연료



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호 군수는 "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소외된 지역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